*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11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70호

## F-X공동행동, 범국민대회

### 국방부, 마지막 기회 외면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국방부가 ≪F-X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10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F-X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F-X 2단계 평가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현재 F-X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F-X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던 조대령과 김모 대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1차 평가가 이루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이미 F-15K로 답을 내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F-X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시했다.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방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F-X사업 전면 재검토와 연기≫라 주장하고 ≪국방부가 힘들다면 국회 국방위에서의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발전소 매각, F-15K 도입,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이제 국민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무기 도입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화군축운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규탄연설 후 참가자들은 종이로 만든 F-15K를 찢어 국민의 혈세를 상징하는 밑이 뚫린 돈상자에 집어넣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사회를 보고있던 김종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은 ≪F-15K 구입으로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미 군사적 종속과 남북간 군비증강,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F-X사업 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정리집회 장소인 용산미군기지 1번게이트까지 ≪F-X외압의혹 진상규명≫, ≪F-X 전면재검토≫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인 후 범국민대회를 마쳤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0

## ≪역사왜곡≫ 일본교과서 검정통과 규탄

일본의 극우보수 단체인 ≪일본회의≫가 신청한 고교과정 역사교과서가 일본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회의의 ≪최신일본사≫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회의의 역사교과서 검정통과에 대해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서중석 )는 9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2년 최신일본사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하고 일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최신일본사의 문제점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황국사관 군국주의 사관을 부활시켜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하며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사관을 강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히 지향하며 △최초로 독도 등을 일본의 영토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중석 상임공동대표는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월드컵을 앞둔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에 일본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양국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독도문제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교과서 운동의 성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한국의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 이북 중국과 연대해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과서 운동본부는 남-북-중국-일본의 아시아 시민들이 지난해 교과서 파동을 통해 연대의 틀을 마련했으며 계속해 공동대응할 것을 밝히는 한편 일본정부에 교과서의 재수정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0

## 북한학과 학생들 첫 단체방북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등 42명이 10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2박3일간 ≪금강산 답사 봄소풍≫ 을 떠났다. 이전에도 북한학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금강산이나 평양에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북한학과 학생들의 단체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에 여행을 간 학생들은 대부분 북한학과 학생들이지만 이 대학 사회대 다른 학과 학생들과 덕성여대 학생도 있고 북한학과 조교도 동행했다.

지난해 가을에도 금강산 수학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1인당 여행경비가 40만원 이 넘어 포기했던 동국대 북한학과는 최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 발표 덕에 소망을 이루게 됐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 경비로 1인당 19만9천200원만 내고 나머지는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학과장인 박순성(朴淳成) 교수는 ≪학문도 가슴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전공 학생들은 북한을 직접 보고 오는 게 가장 좋다≫며 ≪앞으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학생들을 금강산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04/10

**2 노작**
-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

**4 세기와더불어**
- 6장 1절 남만으로 (2)

**6 칭송**
- 이남출신 노동자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
- 태양은 영원히 /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7 구국의 소리**
- 미군기지이전과 신설 반대 투쟁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9일
- 미국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
-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반북대결론
- 조선일보는 부시의 충견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9일 보도
- 위대한 령장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12 평양방송**
-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

**13 아리랑뉴스**
- 시민단체 ≪테러방지법≫폐기운동 활발
-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FX 사업에 옐로카드
- 시민사회단체 등 대의원대회합법성사 촉구
- 대북 전문가 97.4%, 특사 방북성과 긍정 평가
- 민언련, 족벌언론 ≪조선·동아≫ 공정보도 촉구
- 이회창 ≪좌파적, 친북태도 의미≫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5)

**16 조국통일3대현장**
-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1)

#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 주체71(1982)년 10월 17일

오늘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56돐이 되는 날이다,

≪ㅌ.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위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 당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영도가 없이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초기 공산주의운동에서 곡절을 겪은 조선혁명은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는 전투적인 당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조선혁명의 이 절실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 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ㅌ.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ㅌ.ㄷ≫로부터 시작된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내오심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혁명적 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0년대 후반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게 됨으로써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결함들이 극복되고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 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였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 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담당자,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자신이다. 매개나라에서 노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방침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짐에 따라 매개나라 혁명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전진시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매개나라에서 당을 창건하는 사업도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이였다.

종래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 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어 나오는 방법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만 쳐다보면서 파벌투쟁을 일삼아 당을 말아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다.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었다.

혁명적 당을 창건하려면 낡은 당이나 종파주의, 사대주의에 오염된 기성세대와 인연을 끊고 참신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노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빨리 키워낼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쌓을 수 있었다.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을 훌륭히 키워낼 수 있었으며 당을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 부대로 건설해 나갈 수 있었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은 이처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카륜회의 후 당조직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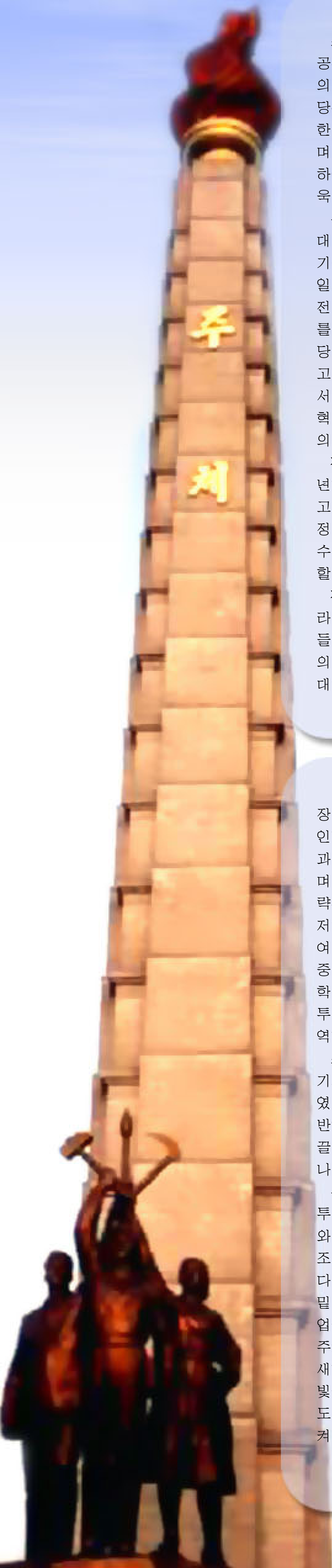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 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1930년 10월초에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었다.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 안에는 연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1934년 3월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내오고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하여졌다.

#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위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었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 당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었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 혁명역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후반기에 당조직들을 국내에 널리 확대하고 반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전반적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 영도를 확고히 실현할 것을 구상하시고 이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여기에서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힘있게 벌여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 수 있도록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었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었다. 이리하여 만주의 넓은 지역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었다.

전국적 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영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었다.

1936년 5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적 영도가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당의 대중적 지반이 훨씬 강화되었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당적 영도를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오와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 우리 당조직들이 건설되어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영도, 당적 영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은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며 당회의들에서 토의결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어 당 및 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에서 매시기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정확한 노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게 한 결정적 담보로 되었다.

사실 당시의 조건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은 당의 조직적 의사를 반영하는 회의였으며 당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데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영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속에 수령이 제시한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국내외 여러지역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처럼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그 영도 밑에 투쟁하였기 때문에 유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 수 있었으며 그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시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당창건위업을 완성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 당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새사회건설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 타도제국주의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 타도제국주의동맹은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결성되였다. 일제통치가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6년 10월 10일 몸소 키우신 핵심성원들의 준비회의를 소집하시고 이미 구상해 오신 혁명조직의 명칭과 성격, 강령과 활동규범을 밝히시였으며 그후 그에 기초하시여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를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정치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강령에서 당면과업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것을 내세웠으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ㅌ.ㄷ≫는 동맹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광범한 군중속에 조직을 빨리 늘여 나가는것을 자기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방침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결성된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새 세대 공산주의자로 키워 냈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닦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1927년 8월에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인 비합법적청년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되였다.

2권 제6장

##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리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 1. 남만으로 (2)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량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량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해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 않게 간절하였다.

총알맛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량세봉사령은 백전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였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테로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령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결론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남만에는 량세봉부대외에도 리홍광, 리동광과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리홍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후날 중국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

리홍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데도 있지만 관동군신문, 만주국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녀장군≫이라고 오보한데도 있었다.

리홍광이 ≪녀장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어싸. 동흥습격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리홍광은 자기의 휘하에 있던 한 녀성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심문하게 하였다. 그 녀대원은 심문에 앞서 ≪나는 리홍광이다≫하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배치와 ≪토벌≫계획을 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리홍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는 소문을 퍼뜨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일본군인들속에서는 리홍광이 ≪녀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리홍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담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리동광은 당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일군이였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에게 리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은 김준, 서철, 송무선이였다. 리동광은 룡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룡정에서 리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대 할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리동광이 나를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리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전략을 전하라는 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리동광이 남만특위서기, 동남만성위 조직부장을 력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원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위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만과 마찬가지고 남만지방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력량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련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부대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리홍광, 리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류하, 홍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 만주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군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공장을 시키었다. 최창걸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직들이 9.18사변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떤 력사가들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로정을 남만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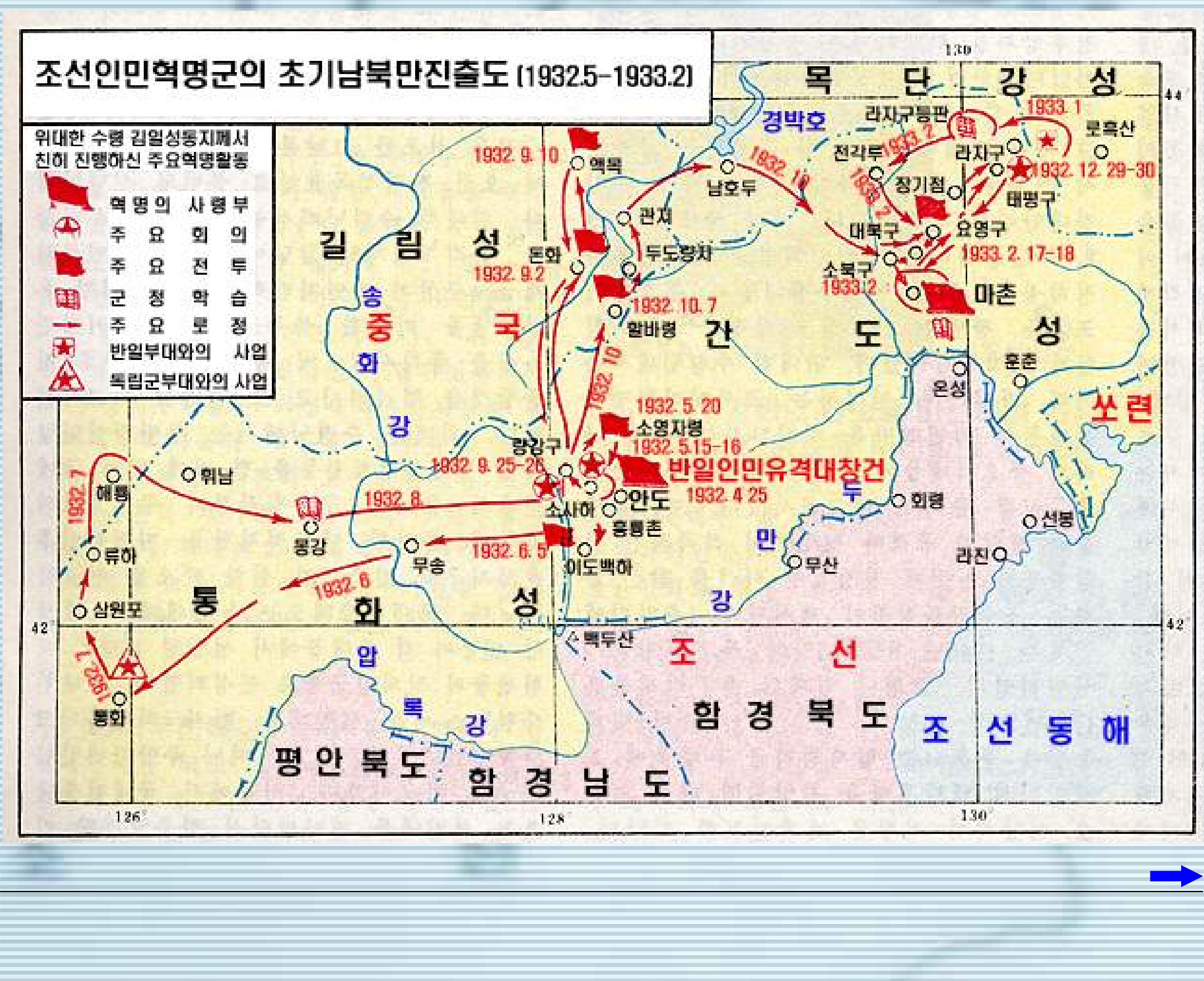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김정룡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문제와 근거지 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부대안에서 두세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론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원정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이었다.

우리가 원정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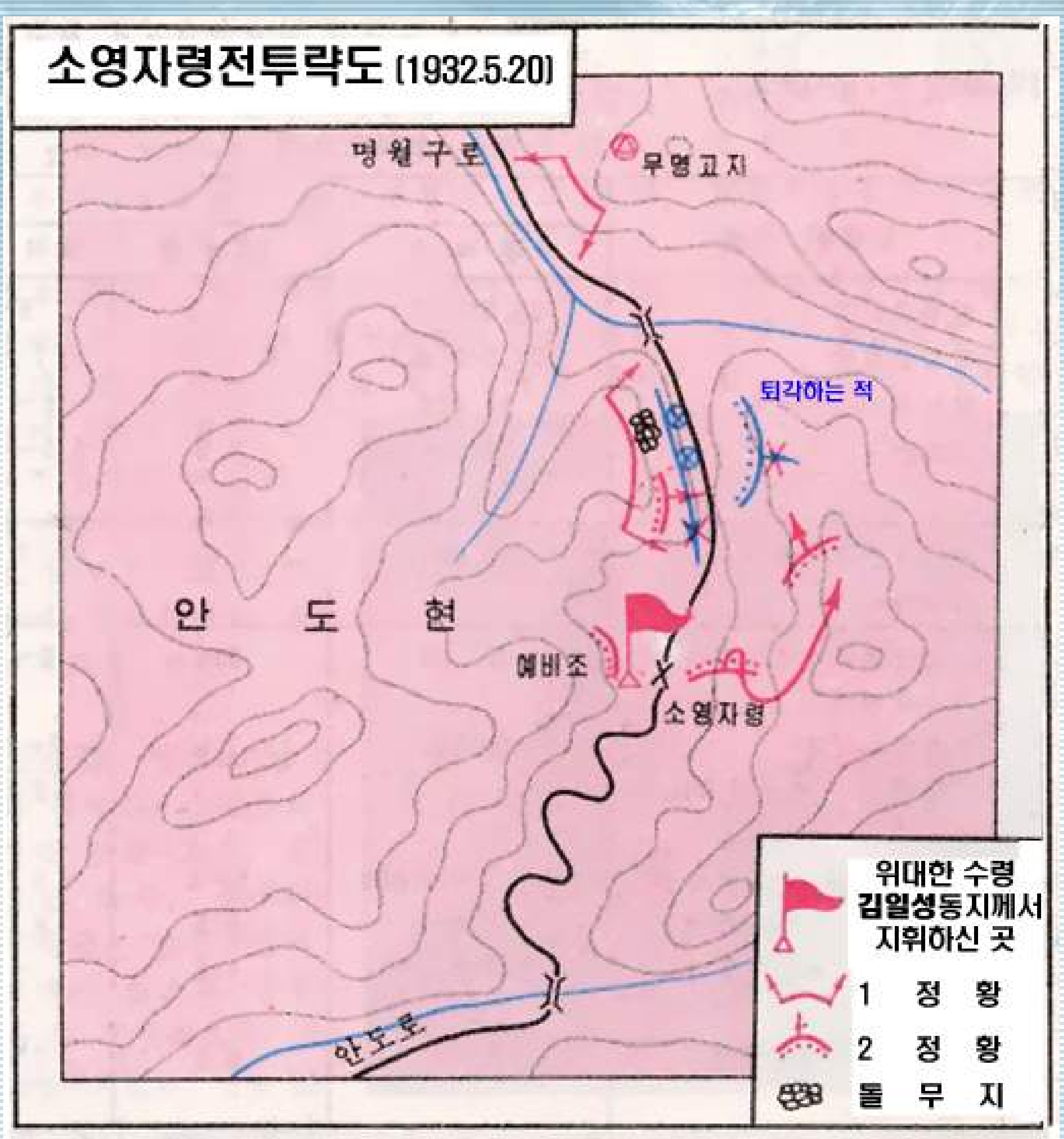
≪대장동무, 원정을 갈바엔 며칠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뜨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엔 신작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구, 식량사정두 매우 곤란한 형편이오. 농가는 40호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솔이 모여서 먹어대니 소사하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디어 내겠소.≫봄부터 기근이 들어 춘황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었다.

그러나 적수송대의 래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




≪참모장 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전투를 하자는 거요?≫

≪그렇소, 부대를 무었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갔다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멋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 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작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매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였다. 그들은 소영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형식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매복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소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오불꼬불 나 있어 매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고장이였다. 적들은 이 도로를 리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였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신속한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량쪽에 매복시키였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아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였다. 항일전쟁의 전기간을 걸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실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이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소영자령에 나타났다. 100메터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치 몹시 긴장되고 흥분되였다. 처음으로 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어지간히 긴장되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매복조는 마치행렬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행렬이 두번째 매복조앞으로 한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우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팔에 흰수건을 감아서 적아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적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명의 호송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에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었다. 적들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병사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하사관이였다.

나는 투항한 적들앞에서 짤막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목조)툰으로 돌아왔다. 보총 17정과 권총 1정, 그밖에 100여명이 한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량의 밀가루와 천, 군화… 첫 전리품으로는 대단히 푸짐한 량이였다.

밤 12시가 넘어 우등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맛도 좋았지만 기분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근시경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등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목멘 소리로 말했다.

≪이것보오, 성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었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 것이였다. 싸움이란게 별 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였다.

≪이런 때에 김혁이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나오는건데. 사람두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제우, 공영이, 모두 어디에 가고 없단 말인가!≫차광수는 넋두리라도 하듯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조석을 닦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애달픈 심회를 달래일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오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차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세를 써가며 우등불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첫 걸음을 떼었소.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소.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요.≫그는 두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총을 들었으며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하오. 안 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업의 시작이오. 자그마한 내물이 심산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흐름을 시작했단 말이오.≫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였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로획한 총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새 적을 쏴눕힙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오.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오. 로획한 량식으로 미대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방식이고 투쟁방식이 아니겠소.≫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 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 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조덕화였던지, 박훈이었든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 짚었다.

(끝)

일화

# 이남출신 노동자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

주체45(1956)년 11월15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북의 강철생산기지인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몸소 노동자문화회관에서 노동자들이 출연하는 소박한 예술공연을 보아주셨다.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린 예술공연은 처음부터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하시며 먼저 박수를 쳐주시곤 하셨다.

이윽고 공연종목이 바뀌어 한 젊은 노동자가 무대에 나와서 시를 읊었다.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사랑의 자국, 현지지도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 있는 제강소에서 일하는 크나큰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강재를 뽑아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보내며 이남형제들을 구원하리라는 절절한 심정을 시에 담아 격조 높이 읊었다. 시낭송이 끝나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제강소의 한 일꾼에게 시를 쓴 노동자의 이름까지 물어 보시고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다.

그러시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분께서는 시를 지어 읊은 그 노동자의 고향이 어덴가 고 물으셨다.

고향이 이남땅이고 상이군인이라는 일꾼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 상이군인에게 공부를 잘 시키라고 당부하셨다.

이름없는 평범한 이남출신 노동자가 지어 읊은 한편의 시 속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읽으시고 이남민중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주석님, 언뜻 스쳐 지날 수 있는 한 귀절의 시어 속에서도 시를 쓴 사람의 재능과 심정을 헤아려 보시고 이남출신 노동자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시려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일꾼들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친히 무대에 오르시어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성과를 치하해주시고 시를 지어 읊은 압연공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셨다.

순간 그 압연공은 너무도 황송하고 감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의 어깨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독여 주시며 부모들이 보고싶지 않는가 고 나직이 물으셨다.

보고싶다고 솔직히 말씀 드린 그는 뜨겁게 흘러 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때 그의 눈앞에는 고향을 떠날 때 나라를 위한 싸움길에 나서는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러워 눈물지으며 잘 다녀오라고 당부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며 손저어 바래주던 귀여운 동생들이 선히 떠올랐다.

그럴수록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넓은 한품에 안겨 누리는 이 행복, 이 영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누를 길 없었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보시고 안색을 흐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에게 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부모형제를 만나 보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부를 더 잘하고 많이 배워서 일을 더 잘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셨다.

그러시고나서 예술소조원들을 둘러보시며 예술소조활동을 더 잘해 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후 이남출신의 그 노동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면서 창작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 나갔다.

송가

# 태양은 영원히

일본인 가네다 노무레

사무칩니다, 사무칩니다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조선사람도 아닌 제가 주석을
어버이라 부른다고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뵈었더라면
이 마음 이다지 아프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제 뵙겠습니다
주석,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주석은 저의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끝없이 전해지는 인간사랑의 이야기
길가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손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보내시고

농민들 만나 담배도 권하시고
깊은 수림속 사령부에서 밤도 주워
사병들과 함께 드셨다는
사랑의 전설,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조선의 어버이
그분은 진정 태양이십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십니다

태양의 후계자 **김정일**장군각하의 주위에 한마음되어
한반도의 북과 남
꿈에도 소원인 평화통일, 큰 걸음 내디디었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순탄치 않아도
**김정일**장군님의 당과 군대, 민중은
새 승리의 길로 내닫기에

**김일성**주석각하는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흠모

#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일본의 평양방송청취자인 호소가와 데쯔야(회사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천리마시대≫라는 중간제목을 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 노선은 정당하다. 그것은 인민경제의 안정을 담보하고 나라의 자주, 자립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인민들은 주석의 현명한 영도 밑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벌이었다. 천리마운동의 기수들인 인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농촌에서는 대 풍작을 이룩하였으며 공장들에서는 현대적인 기계와 제품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걸린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 인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것은 응당하다. 조선에서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 보건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특히 문학예술은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문예작품들이 수많이 창작 보급되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양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60년 2월 몸소 청산리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유명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 기관이 아래 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의 발자취는 나라의 어느 곳이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계신다.

필자는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중간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 첫날 평양의 용남산마루에서 조선인민의 끝없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읊으시었다. 이 시에는 주체의 깃발을 드시고 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에로 영도해 나가시려는 **김정일**동지의 변함없는 신념이 담겨져 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주체위업의 계승자로서 시대를 찬란히 빛내어 나가고 계신다.

# 미군기지이전과 신설 반대 투쟁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미군부대이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9일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현재 강원도 춘천에 주둔중인 미군기지는 오는 2007년까지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일대 20여만평기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청년회 등 이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미군기지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기지이전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의정부시내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범시민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30만평의 미군기지신설을 반대해 규탄집회 등 여러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투쟁은 미군기지의 이전이나 신설이 아니라 즉시 모두 철폐하고 반환할데 관한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더없이 의롭고 정당한 투쟁인 것입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된 불모의 땅 414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대신 오산, 평택, 의정부, 포항 등에 있는 노른자위 땅 54만평을 미군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못쓰게 만든 땅을 넘겨받는 대신 기름진 땅을 넘겨주는데도 있지만 우리 민중이 그처럼 요구하는 서울 용산기지와 화성리, 매향리사격장, 그리고 파주에 있는 쿠니사격장 우선 철폐 및 반환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 협의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위해 무려 11억달러의 국민혈세를 미군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동두천과 의정부를 비롯해 휴전선 근처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평택, 군산, 원주, 서울 구로 등 전 지역에 미군의 병영과 탄약창,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을 비롯한 미군기지가 무려 200여개나 있고 그 면적은 1억평이나 됩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재난을 덮씌우는 전쟁의 온상지, 살육과 공포의 발원지, 한국민의 존엄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사각지대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질문화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마약, 밀수행위 등 각종 사회악의 온상지로 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우리 국민이 당하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들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해 그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못이겨 미군당국은 이번에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불모의 땅으로 화해버린 일부 기지들을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노른자위 땅을 넘겨받기로 한 이른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날로 높아지는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을 누잦히기 위한 기만적 조처로써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반적인 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미군은 이 땅에 영원히 틀고 앉아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계속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을 묶고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반대해 그처럼 완강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내외 민중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철수하고 기지들을 즉시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군사집단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대매국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

##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9일**

###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평양의 가요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순차수가 경축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전체 이북 민중과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이 마련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방위원회의 권능과 지위를 새롭게 높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켜 부강조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확고히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북 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선군시대를 열어놓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 전반을 불패의 것으로 강화해 준엄한 역사의 풍란속에서도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4대제일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사상정신적 기개를 높이 떨치는 뜻깊은 해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여야 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민족분열을 비운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옳게 구현하며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군부대이전 대책위결성 경기도 이천 시민사회단체

미군부대이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4월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미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현재 강원도 춘천에 주둔중인 미군기지를 오는 2007년까지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일대 20여만평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청년회 등 이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미군기지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11일에 열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정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범시민대책위측은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부대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헬기소음피해와 환경파괴, 범죄행위들로 이천지역이 더욱 낙후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하루 빨리 끝장내야

각계 민중은 미국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며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하루 빨리 끝장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소속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철천지 원수이다. 그리고 이 땅을 반세기가 넘도록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침략자, 약탈자이다. 미국놈들 때문에 우리 겨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6.25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야수적인 양민대량살상만행은 미군이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악당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동족인 북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 대한 핵공격위협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며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부시는 핵악당이다. 물불을 모르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부시일당을 방치해두었다가는 핵참화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중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 반미반부시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주민은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부시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져오름을 금할 수 없다. 미군기지반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오히려 새 땅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미군전투기들을 무조건 사라고 강박하고 있다. 또 이 땅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정말 미군놈들이야말로 침략자, 약탈자, 전쟁광신자들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 겨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높고 강렬한 것이다. 우리는 반미반부시투쟁에 거족적으로 일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

# 미국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해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이런 화제로 얘길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에 집권한 부시는 첫날부터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대북강경압살정책을 일삼아왔습니다.

강경매파들로 꾸려진 부시행정부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사이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협력과 교류, 왕래가 사실상 무산과 두절의 시련을 겪고 있고 한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초긴장상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구실을 새롭게 마련해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려는 부시행정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부시행정부는 이 뿐만 아니라 선임정권시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북미관계개선을 완전히 뒤집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선인정권과 이북사이에는 적대관계와 교전관계를 완화하고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북미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북미관계개선에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한반도의 안전과 완화의 분위기가 전개되게 됐습니다.

또 북미사이에는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일정에 오르는 것과 같은 전변도 이룩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선임정부가 해놓은 이같은 일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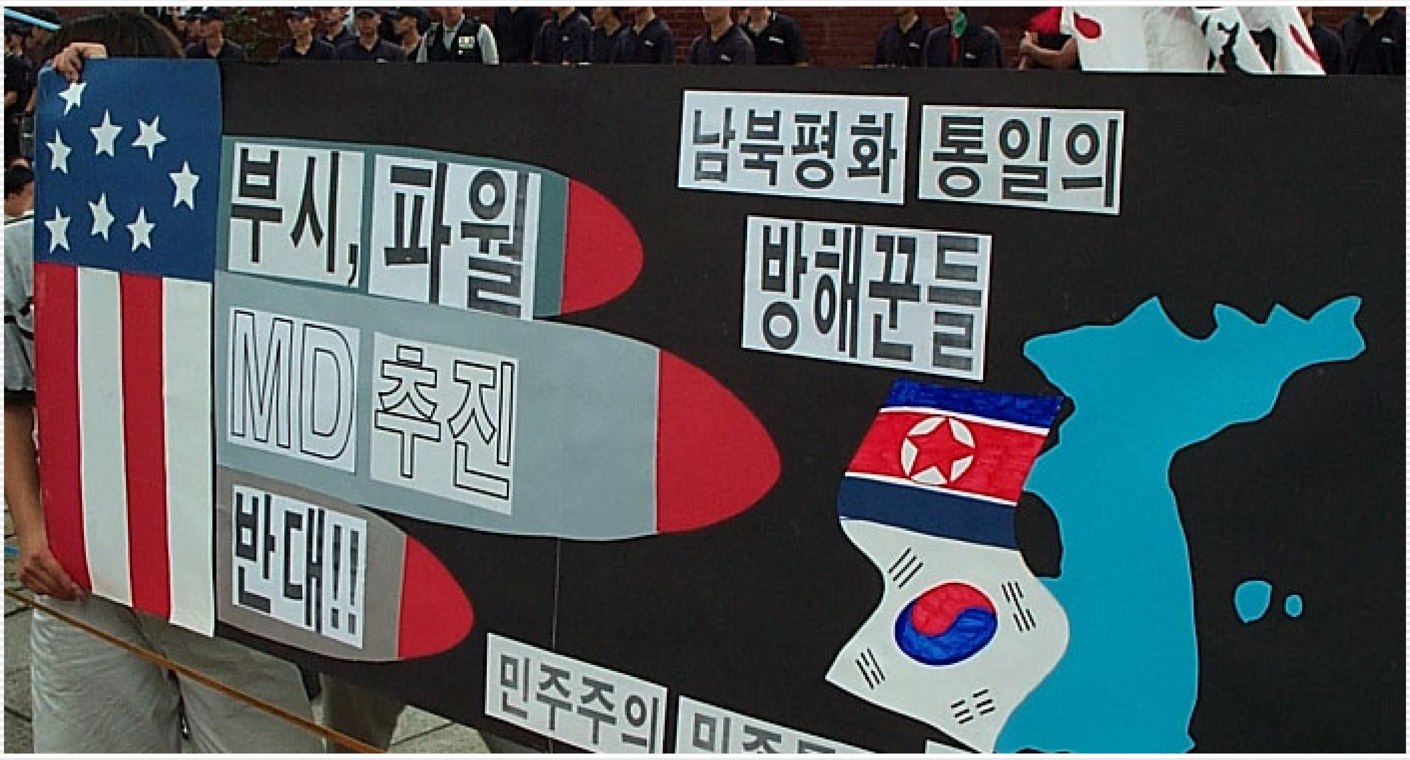
그들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대한 전면검토와 파기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북미관계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백지화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호전집단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증강하면서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했을 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 추진했습니다. 특히 9.11사건이후 미국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의 도수는 더욱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반테러의 미명하에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이북에 있지도 않는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상용무기문제를 걸고들다 못해 ≪악의 축≫론까지 펴면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이북에로 확대할 기도마저 드러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핵태세 검토≫라는 비밀보고서까지 작성하고 이북을 반대하는 핵공격계획까지 꾸몄습니다.

**사회자 :** 부시행정부는 반북적대시정책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한편 한국정부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해 나서면서 남북관계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잖아요.

**김현규 :** 부시가 남북관계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 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박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회창과 같은 친미보수세력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과 ≪상호주의론≫을 떠들게 하면서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 왕래도 훼방을 놀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뿐만 아니라 부시행정부는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일정에 오를 때마다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남북간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과 교류, 이산가족고향방문단교환문제 등이 일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반테러≫의 명목밑에 1개 대대의 공군무력과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된 모든 미군무력이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당국자들로 하여금 이북을 걸고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다음번 공격대상이 이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공개적으로 내돌리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회담들이 결렬되고 4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교환도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잡지 ≪민≫ 1호가 ≪이번에 한미연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 것 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시정권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폭로한 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 땅에서 벌여놓은 대규모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이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죠.

**김현규 :** 미국은 매해 연례행사처럼 별도로 벌여오던 대규모 한미합동전쟁연습들인 연합전시증권연습과 독수리전쟁연습을 합동해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근 70만명의 미군과 국군을 동원해 광란적으로 벌였습니다.

더욱이 이 북침전쟁연습이 미국이 이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명한 것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인해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전쟁연습에 대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사실상 부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전쟁연습이 북침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죠.

**사회자 :** 지금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부시행정부의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소동,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6.15남북공동선언이행, 한반도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반부시반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각계 국민들은 이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부시행정부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기운이 짙어갈 때마다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대북강경책을 쓰면서 정세를 긴장시켜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반통일책동을 저지시키지 않는 한 조국통일은 언제가도 이룰수 없다고 할겁니다.

전민중적인 반미반부시항전으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는 것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걸로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10일**

#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반북대결론

반통일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치는 이회창 한나라당패당들이 최근에는 또 그 무슨 ≪대북기본노선≫이라는 악랄한 반북대결논리를 펴고 있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우리 민중과 겨레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통일운동가 김명훈씨의 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반북대결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온 겨레의 일치한 소망이다. 근 60년에 달하는 수난의 민족분단사는 더이상의 남북대결과 긴장격화가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시기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까지 애국애족의 길, 연공연북의 길로 인생전환을 하고 있는 것도 이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을 괴수로 하는 한나라당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남북신뢰와 단합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를 훨씬 능가하는 반북대결논리를 펴고 있어 국민을 경악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극악한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미호전광의 대북침략기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속에 한나라당에서는 북의 체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무슨 ≪분리원칙≫과 ≪선평화 후교류협력실시≫, ≪국토개발계획≫을 골자로 하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냈다.

까마귀 백로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앞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회창패당이 또다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덮씌우는 더 큰 범죄를 자행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의 하나인 북의 체제와 주민들을 ≪분리≫시킨다는 원칙만해도 그렇다.

북의 체제는 이북 민중의 일치한 염원과 의사에 따라 세워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이다. 하기에 북의 체제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일체화된 가장 견고하고 이상적인 체제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결합되어 그 위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있는 바로 여기에 북의 우월성이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권을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 있는 이북민중을 거기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이 북의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본다는 반북적인 궤변을 들고 나온 것은 부시가 이북 제도에 대해 시비중상하고 제도변경을 운운하며 악의에 차서 줴친 망발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써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남과 북사이에는 이미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대강이 마련되어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는 때에 민족안에 불화의 씨를 뿌리려고 발광하는 것은 반통일대결분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민족반역행위이다.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평화를 유린말살하는 장본인이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도둑이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도둑은 원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법이다.

이회창패당인 한나라당은 한조각의 양심도, 체면도 없는 평화의 교살집단이다. 평화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평화와 교류를 위한 모든 남북대화를 각방으로 막아나서고 있는 것도 그리고 북의 무역선이 동해를 통과하는데 대해 무력대응이니 발사니 하며 전쟁열을 고취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있지도 않는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떠들며 더많은 미국의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획책하며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패거리들이다.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남북사이의 평화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평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화요 교류협력이요 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무마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려는데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에서 더욱 엄중한 것은 국토개발계획이다. 국토개발계획은 본질상 북침계획이고 썩고 부패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북에까지 연장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북침열을 덮씌웠던 선인 군사독재자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부정적 발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이 북을 고립, 압살, 침략하려는 미

국의 대북강경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부시미국행정부의 호전적 정책을 실현에 보려는 식민지 주구들의 행동계획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굴한 아부아첨도 가리지 않는 이회창패당인 한나라당이 달리 행동할 수 없겠지만 ≪대북기본노선≫이 민족민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의 재난을 가져오는 ≪전쟁선언≫, ≪대결선언≫이고 보면 온 민족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미국의 졸개노릇을 하는 주제에 감히 존엄높은 북을 걸고 들면서 무슨 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놓는 것은 궁지에 몰린 이회창역적패당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민족을 배반한 역적에게는 약이 없다. 민족의 준엄한 심판만이 명처방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열을 추구하는 미국의 졸개 이회창역적패당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한다는 그것이다.

부시호전광과 한 뱃속이 되어 반민족반통일행위를 일삼는 이회창 한나라당패당들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10일**

# 조선일보는 부시의 충견

가라!!! 좀 가라~!

朝鮮日報

축! 조선일보 미국으로 본사 이전!!!

창사 82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미국 본토 신문임을 전 세계에 전명

반미운동가 김명식씨의 글 ≪조선일보는 부시의 충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중들은 조선일보를 두고 부시의 항문을 핥아주고 그의 배설물을 영양분으로 기생하는 부시의 충견중 충견이라고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시가 입으로 배설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이건 악한 것이건, 나아가서 민족공멸을 가져올 망언이건 할 것없이 모두 달게 받아 삼키고는 진수성찬을 대접받은 듯 부시를 극구 미화분식해 나서기 때문이다.

과거지사는 덮어주고 최근에 조선일보의 행태만 봐도 그가 얼마나 부시의 사타구니에 붙어 아양을 떨며 놀아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쌍수들어 환영한 것은 언론계에서는 유독 조선일보뿐이다. 부시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북에 대한 핵공격대상지정을 환영해 나선 것도 조선일보이고 용산기지내 미군아파트신축을 적극 지지해 나선 것도 유독 조선일보족속이다.

이쯤되면 조선일보의 속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조선일보는 분명 입질을 잘못 선택한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땅이 아니라 부시의 발바닥밑에 거처지를 정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부시의 귀여움을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때는 일본상전을, 양키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자 상전을 바꾸어 미국상전을 섬기면서 민족반역의 길을 걸어온 조선일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암적 존재이다. 부시의 대변지, 기관지의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그대로 좌시하면 6.15공동선언도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통일이 요원해지고 민족을 멸종시키는 핵전쟁도 터지게 된다.

이북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를 하루빨리 폭파해 그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로 된다.

워낙 외세에 빌붙는 것들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10일**

#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9일

### 국방위원장추대9돐경축 조선인민군군악단 공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경축 조선인민군군악단 공연이 8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시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쳐 가는 끝 없는 영광과 긍지,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

4월 중순 평양에서

인류 사상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 뜻 깊은 시기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가 4월 중순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주체사상세계대회 조직과 관련한 문제, 주석께서 개척하신 세계자주화위업을 힘 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게 된다.

회의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세계 여러 지역의 20여개 나라에서 오는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이 참가하게 된다.

###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의 2일공연 진행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의 2일공연이 8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가수는 이날 공연에서도 민족적정서가 짙은 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노래 ≪반갑습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은 꽃이라네≫, ≪림진강≫을 비롯한 노래들과 계몽기가요들, 가수의 애창곡들이 올랐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가수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예술인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아리랑≫ 난생 처음 보는 황홀한 공연

여러나라 고찰단

여러 나라에서 온 고찰단, 대표단 성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장면들을 보고 커다란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

제2차 로씨야≪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인 로씨야 웰캄려행사 사장 쎄르게이 흐로미흐는 난생 처음 이처럼 거대하고 황홀한 공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각이한 장치물들과 출연자들의 화려한 의상과 소도구들은 우리의 마음을 틀어 잡았다.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 대단히 기뻐 할것이다.

로씨야 웰캄려행사 과장인 나딸리야 꼬노노바는 ≪아리랑≫은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규모가 큰 대걸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관광일군으로서 많은 나라에 가보았지만 이런 황홀한 공연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로씨야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이 훌륭한 ≪아리랑≫을 꼭 보아야 한다.

로씨야 원동항공회사 제1부사장 류드밀라 듸르지나는 자기는 배경대에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한순간에 희한하게 펼쳐 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로씨야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 주면 그들이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외국기업개발협회 사장 로져 바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리랑≫은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예술발전수준을 보여 주는 최상의 작품이다.

특히 배경대가 대단히 훌륭하다.

배경대를 보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전 미국무장관이 배경대를 보고 콤퓨터로 하지 않는가고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하다.

≪아리랑≫작품은 조선사람들의 민족성과 예술적기교가 아주 높다는 산 증거로 된다.

## 신문들 국방위원장추대 9돐에 즈음하여 사설

9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9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신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9년전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국의 전도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은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그이께서 지난 9년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가장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을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권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9년간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군건설의 최성기를 펼쳐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오시였다.

신문은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싸워 나가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김일성**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더욱 힘 있게 떨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 신문들, ≪F－15K≫전투기를 남조선에 판매하려는 미국을 규탄

9일부 이곳의 신문들은 최근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수 있는 ≪F－15K≫전투기 수십대를 남조선에 팔아 먹으려고 책동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론평들을 실었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증강책동의 범죄적속심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작전반경이 조선반도경내를 훨씬 벗어 나는 ≪F－15K≫전투기를 남조선에 들이밀려는 것은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확립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남조선무력을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우기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알려 진데 의하면 미국, 남조선련합군사령관과 미국보잉회사 부회장은 ≪F－15K≫전투기판매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에 압력을 가했다. 지어 ≪F－15K≫생산공장이 있는 미주리주출신의 미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본드는 남조선이 문제의 전투기를 사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협박했다.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대량살륙무기들을 사전에 현지에 배비하면서도 그 부담을 남조선에 지우고 무기장사로 막대한 돈까지 벌어 제 주머니에 채우는 미국의 행위는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미국은 사태를 바로 보고 무력증강책동을 걷어 치우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은간또신용조합에 대한 테로행위는 반총련 책동의 연장

민주조선

최근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에 있는 조은간또신용조합 본점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 조합 요꼬하마지점밖에 있던 자동현금출납기실의 유리창이 어떤 괴한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조선≫ 9일부는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우익반동세력들의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테로행위이며 날강도적인 범죄적책동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간또신용조합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련이은 테로행위는 반총련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당국은 력사적견지에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도의적의무를 지니고 있다.

일본당국이 이것을 외면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모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 있는 해외교포단체이다.

총련에 대한 적대행위는 곧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로 된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범인을 체포하여 엄격히 처벌하며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 위대한 령장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9일

오늘 백전백승의 선군기치 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온 나라에 끝 없는 기쁨과 환희가 차넘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9돐을 뜻 깊게 맞이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국의 전도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는 국가와 무력을 통솔하는 령장의 위대성에 달려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신 인민만이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으며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 령장복을 누리는 긍지 높은 인민으로 자랑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수십성상 우리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시면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령군술을 지닌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전반적국방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으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강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진두에 모신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운으로 되는가를 날이 갈수록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9년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을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권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국력이자 곧 군력이다. 나라와 민족의 불패의 위력은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9년간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군건설의 최성기를 펼쳐 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 없는 현지지도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사상의 강군,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전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된 우리 조국의 현실에도 비껴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은 무적의 군력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전군에 혁명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서고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만탄창되여 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 온 사회에 총대중시기풍이 차넘치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건드릴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지금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강권정책이 추호도 통할수 없다. 선군시대에 천백배로 다져 진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배심 든든하며 승리만을 떨쳐 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위력 떨치고 있다.

단결은 국력의 기본을 이룬다. 나라와 민족의 위력은 철통 같은 사상의지적단결에서 힘 있게 과시된다.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철학이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그 위력으로 혁명을 전진시키는것이 **김정일**동지의 일관한 혁명령도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인덕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굳게 묶어 세우시였으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 지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려는 일념으로 굳게 결속되여 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끓어 번지는것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것도 어떤 역경이 닥쳐 와도 위대한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동지적의리와 혁명적지조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군대와 인민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굳게 결속된 정치강국은 이 세상에 없다. 령도자는 숭고한 인덕으로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주고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천지풍파도 뚫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기를 열어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는 나라의 군사정치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웠을뿐아니라 경제강국건설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 놓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던 엄혹한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에 인민군부대들을 파견하시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도록 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온 나라에 전투적열정과 기백이 세차게 약동하게 하고 경제강국건설의 전환기를 열어 놓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대규모 토지정리와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수많이 일떠섰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가 적극 다그쳐 지고 농업과 경공업발전을 위한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펴 주신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새 세기의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경제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무적필승의 강국으로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우리는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척같이 다져 진 이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생명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던 그날의 격정과 환희를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모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우리의 당이고 군대이며 국가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제일이며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이 으뜸이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선군시대의 참된 충신이 되여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인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정치를 받드는 제1선대오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투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방을 우선시하고 국방에 필요한것을 선차적으로 보장해 주는 원칙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 군사중시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언제든지 대처할수 있게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확고한 계급투쟁관점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일해 나가야 한다.

(13면에서 계속)

#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9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9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여러 단계의 혁명을 열외없이 빠른 속도로 빛나게 실현하신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혁명위업 계승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누가 수령과 그 위업을 이어나가는가 하는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통찰하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위인의 출중한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수령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영도자의 숭고한 풍모와 자질을 갖춘 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보좌하시며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헌신적인 실천투쟁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절감하게 되였으며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 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고 경사이며 최대의 행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간부대열을 충실한 사람들로 전망성있게 꾸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부는 당의 핵심역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것만큼 당의 기초를 쌓고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대열을 잘 꾸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간부대열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실한 사람들로 전망성 있게 꾸리도록 하시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서 간부대열에 신념이 없고 능력이 없고 떨떨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의 지시가 잘 내려가지 않게 되며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을 기본 표징으로 해서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일상적인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서 간부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부대열을 꾸리는데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일군들을 간부로 선발 배치하는 것을 첫째가는 원칙으로 규정해 주시고 친척, 친우, 동창, 동향, 사제관계와 같은 정실안면관계에 따라 간부문제를 처리하려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간부사업에서 당적, 혁명적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충실성과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릴 뿐아니라 조직사상생활을 통해서 간부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부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수양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들 속에서 높은 당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며 간부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투쟁을 단결의 원칙에서 강한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일군으로 키워 그이의 곁에 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당의 간부대열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 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1970년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하면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지적하시고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석같이 뭉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당원들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결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서 이미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 당 안에서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이제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하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꿍꿍이를 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무기인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 단위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집중시키고 그이의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당으로 되자면 당 중앙에서 ≪가≫ 하면 밑에서도 ≪가≫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의 방침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 전반을 다 맡아보시는데 맞게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들에 새로운 직제도 내오게 하시고 지도과들에 지도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간부들의 당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당사업 정형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집중되게 하며 당의 승인 밑에서만 당조직들과 당조직책임자들을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대책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시기에 취해주신 모든 중대한 당적 조치들은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집중시키고 그이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한 영도로 주체혁명위업 계승문제,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체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폐기운동 활발

## 테러방지법 폐기 시민홍보

국정원이 지난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을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하기로 합의 · 발표하자 그동안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해 기자회견, 600인선언등으로 반대 운동을 벌여 오던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건복지 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진보교육연구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부근 미주빌딩 앞에서 집회≪사진≫를 열고 정부에 테러방지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점심시간을 이용, 지나는 시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설명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테러방지법폐기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국민의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꾸준한 반대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성해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월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분석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달 4일 기존의 법과 제도 체계로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 대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 법안의 각 조항들이 헌법 및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별도의 테러 대책기구의 운영은 민주적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이 달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시민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0

# F-15K 도입하려면 복지예산에 써라

## 2백79개 단체, 정부의 FX사업에 옐로카드

2백 7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전국민의 의혹 속에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15K 내정한 정부를 향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은 성능, 가격, 기술이전 등 대다수 요소에서 평가 대상이었던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였던 F-15K가 선택된 것에서 국민의 결사적인 반대보다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는 결국 현 정권이 자주국방의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6조원의 혈세를 전국민이 다 아는 종이비행기 F15를 구입하는 것보다 노숙자, 결식아동, 파탄난 의료보험 재정 등 국민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며 F15 구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정부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유일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민심을 버리고 있다≫며 민심에 반하는 F15K 구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남겼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F-15K 철회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4월 한달동안 온라인상(www.cleanfx.net)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0

(12면에서 계속)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군민이 산악같이 떨쳐 일어 나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고 **김정일**군사강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 나가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선군시대의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기 몫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진짜 배기충신이며 애국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이고 실리를 따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어려운 시련이 가로 놓여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싸워 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검 · 경 · 국정원등을 초청합니다

## 대구시민사회단체, 한총련 등 대의원대회합법성사 촉구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 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한총련과 한총련합법화범사회인대책위(상임대표 강만길 상지대 총장, 대책위)가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져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합법적 행사개최를 호소했다.

강령개정 등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기 한총련은 이번 대의원대회에 관계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교육인적자원부)을 초청하는가 하면 개최지 장소인 대구의 시장, 영남대학교 총장과의 대면을 한총련 임시의장이 추진중이라고 윤경회(10기 한총련 대변인, 홍익대총학생회장)씨는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안당국이 낡은 법규정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해마다 수많은 수배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생의 대동문화, 진보적 철학, 희생과 비판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개최 보장 △수배조치 일괄 해지 및 구속자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의 내용으로 대검찰청, 경찰청에 면담신청을 보내 9일(화) 대검 공안과장 면담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면담과정에서 검찰청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대법원과 정부의 방침에 따를 뿐이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대회는 경찰 측의 임무다≫고 답변했다고 대책위 오종렬 상임대표는 전했다. 또한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는 강령개정 등 노력은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한총련의 정책, 활동방식, 단어사용 등이 여전히 북측과 동일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경찰청의 면담신청거절에 따른 항의방문을 10일 진행하며 12일부터 대구지역에서 행사 과정을 보며 적절한 대응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12일부터 삼일동안 치뤄질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전국 176개 소속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장 이상의 대표자 약 1천 여명을 포함해 수천 여명이 모여 12일 저녁 의장선출을 시작으로, 아리랑축제 대규모 참가를 위한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발족, 양대선거 입장 등 본격적인 한해 사업, 투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는 한총련 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예정이고 대의원대회에서 수정된 강령이 통과되면 새 강령으로 합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대회 장소는 지난 3월 28일 영남대생 2천 5백 여명이 모인 학생총회를 통해 유치가 확정됐으며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의원대회 안정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행사 개최지인 대구지역에서는 10일 종교, 여성, 교육, 문화예술, 보건의료, 농민 등 사회각계인사 302인 선언을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정부당국에게 촉구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10

# 대북 전문가 97.4%, 특사 방북성과 긍정 평가

## 민주평통, 대북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임동원 특사 방북성과에 대해 대북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성과와 관련, 4월 8일~9일에 걸쳐, 대북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번 특사 방북의 최대 성과로는 ≪美의 특사 방북제의 수용 등 한반도 긴장조성 방지≫와(43.4%), ≪남북사이의 철도 · 도로 연결≫(25.6%)을 들었고, 이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5.5%), 군사당국자회담 재개(8.4%), 경협추진위 개최(7.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특사의 방북이 이북의 對美태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5%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으며, 향후 북미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망도 밝게 내다봤다.

식량, 비료 등 향후 대북지원의 수준에 대해서는 70.9%가 ≪예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심이 되고 있는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망은 71.7%의 응답자가 ≪잘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8.3%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이북이 식량난 타개와 아리랑 축전의 성공, 미국의 대북압력 회피 등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합의에 응했다≫고 보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평통 통일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88명), 국책 및 민간연구소 연구위원(41명), 언론인(16명), 시민단체인사(13명) 등 대북전문가 총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115명(응답률 68%)이 응답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이다.

**1. 특사 방북의 성과 평가**

| | |
|---|---|
| 매우 만족 | 23.9% |
| 대체로 만족 | 73.5% |
| 대체로 불만족 | 2.7% |
| 매우 불만족 | |

**2. 특사 방북의 최대성과 (擇2)**

| | |
|---|---|
| 美의 특사 방북제의 수용 등 한반도 긴장조성 방지 | 43.4% |
| 남북 사이의 철도 · 도로 연결 | 25.6% |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15.5% |
|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 8.4% |
| 경협추진위원회 개최 | 7.1% |

**3. 특사 방북으로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 | |
|---|---|
| 매우 동의 | 10.6% |
| 대체로 동의 | 73.5% |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5.9%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4. 식량, 비료 등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수준**

| | |
|---|---|
| 예년 수준 | 70.8% |
| 예년 수준보다 확대 | 23.0% |
| 예년 수준보다 축소 | 6.2% |
| 지원을 중지 | |

**5. 특사 방북이 이북의 對美태도 등 한반도정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

| | |
|---|---|
| 크게 영향을 미쳤음 | 8.8% |
| 대체로 영향을 미쳤음 | 71.7% |
|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6.8% |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7% |

**6. 향후 북 · 미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망**

| | |
|---|---|
| 매우 밝음 | 1.8% |
| 대체로 밝음 | 62.8% |
| 대체로 어두움 | 35.4% |
| 매우 어두움 | |

**7. 이번 공동보도문(4.5)의 남북간 합의의 이행전망**

| | |
|---|---|
| 잘 이행될 것 | 0.9% |
| 대체로 잘 이행될 것 | 70.8% |
| 대체로 잘 이행되지 않을 것 | 28.3% |
| 전혀 이행되지 않을 것 | |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0**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측 영접단과 악수하고 있다

# 민언련, 족벌언론 ≪조선 · 동아≫ 공정보도 촉구

조선 · 동아일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언론 관련 발언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노후보에 대한 일방적 비난만을 퍼붓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언론은 경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그동안 유독 노무현 후보에 대한 약점잡기식 기사-한총련 노사모 가입, 노무현 후보 장인 좌익활동 경력, 노동조합에서의 연설 등-를 비중있게 보도해왔다. 이어 이들은 노무현 후보가 언론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이인제 후보의 일방적 발언을 사실 검증없이 1면 머릿기사로 내보냈다.

이러한 조선 · 동아 · 중앙일보의 보도태도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이 언론들에게 불확실한 폭로성 발언을 정확한 사실 여부 판단 없이 기정 사실화하여 특정후보 흠집내기용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또 이 사안을 연일 대서특필한 이 언론들은 사건의 진위여부를 낱낱이 파헤쳐 사실보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8일 시사평론가 유시민씨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의 ≪유시민의 시사카페≫를 통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동안 이인제 후보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아왔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씨는 조선과 동아일보가 노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이후보의 일방적 주장(한총련의 노사모 가입설, 세상 떠난 지 30년이 지난 장인의 좌익활동 경력 등의 색깔 공세)만을 그대로 지면에 옮기고, 노후보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선 당일, 노후보가 언론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이후보의 일방적인 폭로성주장만을 1면에 담는 등의 행위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씨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보가 민주당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조중동은 자만심과 과시욕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대통령이 되는 데 조중동의 낙점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사회당 역시 8일 논평을 통해 ≪레드컴플렉스를 부추기는 퇴행적 사설을 버젓이 내놓는 언론이 한나라의 대표언론이라며 호통치는 것에 실소를 보내는 것도 지쳤다≫며 ≪조선 · 동아일보가 뒤틀린 형제애를 발휘≫,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제발 언론 구실 좀 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 독자평에는 네티즌들의 조선일보 일방적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정모씨는 ≪공평하게 하려면 노후보의 언론관련 발언만이 아닌, 97년대선 이후 이회창씨가 특정 기자들을 향해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발언한 것 역시 언론자유 탄압인데 똑같이 비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0**

# 이회창 ≪좌파적, 친북태도 의미≫

이회창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9일 김대중 정권을 ≪좌파적 정권≫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해 ≪이는 (서유럽의 좌우파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나오는 개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문제에서 이북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좌파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겨레≫와의 정책 인터뷰에서 ≪≫좌파적 정권≫이란 발언의 ≪좌파적≫이란 의미가 서구적 의미의 좌우파 개념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돼온 친북의 개념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발언은 ≪좌파적≫이란 용어를 정책 노선상의 좌우파 개념이 아니라,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색깔론의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일반적으로 자유보다 하향평등을 강조하는 것을 좌파적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경우엔 다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런 가치문제에 대해 이북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좌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추구하는 ≪보수≫를 ≪확실한 법과 원칙을 세우고 더욱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안정적 경제개혁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길을 가기 위해 공감하는 많은 사람과 ≪국민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보수대연합을 추진할 뜻임을 내비쳤다.

**박찬수기자**
**인터넷 한겨레 2002/04/10**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5)

##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 3

미국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2001년 6월 21일 부시와 럼스펠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계약은 보잉사가 반드시 따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에프(F)-15의 판매가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몇몇 의원들은 2002년 1월 18일에 직접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에프(F)-15를 사가라고 요구하였다. 서울에서 암약하고 있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도 낙후기종 강매사업을 위하여 비밀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사가지 않는 낙후기종을 강매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강압에 굴종 · 순응하는 속국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국)은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보잉사의 낙후기종 생산체계를 폐기할 때 생기는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남(한국)에게 떠넘기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비굴하고 무능한 친미예속정권은 저들의 강압에 굴종 · 순응하고 있다.

낙후기종을 팔아먹는 무기강매사업에 이처럼 미국의 관계, 정계, 군부, 군수산업체, 국가정보기관들이 총동원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이 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잉사가 재정적 난관에 빠져있고, 특히 군용기 생산부문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에 보잉사의 총매출 규모는 510억 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군용기 및 미사일 부문이 약 120억 달러로서 전체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각지에 산재해있는 군용기 공장과 미사일 공장에는 종업원 약 4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2001년 11월 1일에 미군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인 통합공격기(Joint Strike Fighter)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은 라키드 마틴사(Lockheed Martin Corp.)였다. 보잉사(Boeing Co.)가 탈락한 것이다. 보잉사는 2001년도에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전투기 입찰경쟁에서도 탈락하였다. 미군의 통합공격기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미군과 영국군은 25년동안 3천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 개발사업의 초기규모는 189억8천만달러에 달하지만 나중에는 2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보잉사는 이 ≪황금시장≫을 놓친 것이다.

라키드 마틴사는 2001년 회계연도에 미국 국방부와 147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금액 순위에서 7년동안 연속하여 1위에 올랐으며, 2001년 한해 동안 라키드 마틴사의 주가는 46퍼센트나 뛰어올랐다. 그에 비하여 보잉사의 주가는 2001년 5월에 70달러였던 것이 9월에는 43.46달러로, 10월에는 33.31달러로 곤두박질쳤다. 보잉사의 영업수익은 2001년 4.4분기에 겨우 1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의 같은 기간의 영업수익 4억8천100만달러에 비하여 79퍼센트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사는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전체 종업원의 15.2퍼센트에 해당하는 3만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도에는 매출이 60억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02년 2월 5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12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보잉사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보잉사의 군용기 부문과 미사일 부문이 계속하여 재정손실을 입으면서 쇠락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관계, 정계, 군부, 군수산업체, 국가정보기관들이 모두 달라붙어 남(한국)에 낙후기종을 팔아 넘기는 강매작전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남(한국)에게 낙후기종을 강매하려고 하였지만, 남(한국)의 사회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


광고

# 미 술 론

주체80(1991)년 10월 16일

**1. 인간과 미술**
1) 아름다움은 자주적 인간에게 있다
2) 미술은 조형예술이다
3) 미술은 역사에 기념비를 남긴다
4)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에는 여러모로 미술이 수놓아져 있다
5) 사실주의는 역사적으로 보아야 한다

**2. 조형과 형상**
1) 주제를 다양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2) 인물형상에서는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3) 인물형상에서 기본은 얼굴묘사이다
4) 자연은 뜻이 깊고 정서 있게 그려야 한다
5) 구도는 형상을 하나로 묶어 세운다
6) 조형적 형상은 입체성이 있어야 한다
7) 계기를 옳게 정하여야 한다

**3. 종류와 형태**
1) 조선화는 우리의 회화이다
2) 조각은 기념비미술의 기본형식이다
3) 출판미술은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이다
4) 공예는 정교한 예술이다
5) 건축장식미술은 건축물의 품위를 돋구어낸다
6) 영화 및 무대 미술은 조형적으로 째이고 실감이 나야 한다
7) 산업미술은 쓸모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8) 서예는 뜻과 획의 예술이다

**4. 미술가와 창작**
1) 창작은 열정과 사색의 산물이다
2)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3) 미술가는 높은 기량을 가져야 한다
4) 훌륭한 미술작품은 나라의 재보이다

심지어 남(한국)의 군부 일각에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종결정을 뒤로 미루어 왔다. 전투기 기종선정은 원래 2001년 7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슨 평가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2002년 4월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이 남(한국)에 에프(F)-15를 팔아먹는 강매문제는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미국이 취할 방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여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는 대가로 에프(F)-15를 사가는 ≪교환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최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미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교활한 부시 행정부는 전투기 강매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로 다룰 경우, 남(한국)의 사회여론이 반미감정으로 들끓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식의제로 다루지 못했으며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은밀하게 타결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는데도 얼마동안 서울에 남아있었던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피터 로드맨이 강매문제의 실무처리를 사실상 매듭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기 기종선정문제는 부시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보잉사의 에프(F)-15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오는 2002년 4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1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유독 곤경에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한(조선)반도다. 미국의 정반대 쪽에 있는 동방의 작은 땅 한(조선)반도는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진보적 인류에게 승리의 여명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어째서 한(조선)반도에서 곤경에 빠져들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포악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힘이 한(조선)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의 준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집중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억제력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다. 만일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미약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진보적 인류의 반제자주화운동은 그 최전선이 붕괴되고 자주위업을 향한 인류사의 전진궤도에는 심각한 장애가 조성될 것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은 이 민족을 불행과 고통에 몰아넣었던 제국주의세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조선)민족의 범위를 넘어 인류역사의 앞길을 선도하는 거창한 세계자주화운동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백년동안 제국주의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저지른 침략과 파괴의 불길 속에서, 지배와 약탈의 고난속에서 전세계 피압박민족이 한없이 흘렸던 눈물과 피땀의 값을 한꺼번에 되찾고 자주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는 21세기의 세계사적 임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가장 심한 고통을 강요당한 한(조선)민족의 자주력에 의하여 반제자주화운동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위대한 운동은 본시 하나의 뿌리인 민족주체역량에서 발생되고 전개되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갈래의 운동은 북(조선)의 반제혁명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혁명투쟁이다.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던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에 그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김일성**주석이 영도했던 항일혁명은 일제 관동군의 침략무력에 맞서 싸우는 간고한 혈전을 벌였고,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고 있는 당대의 반제혁명은 미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방대한 무력과 대치하면서 첨예한 반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30년대이후 지난 70년동안 한(조선)민족이 전개해오고 있는 반제혁명은 자주의 기치를 따라 전진하였다.

항일혁명전선에서 반제자주의 총성이 울렸던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몰라보게 바뀐 지금, 북(조선)의 반제혁명은 새로운 정세에 조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새로운 반제혁명전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다. 선군혁명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최전선에 앞세우고, 온 나라가 군사를 중시하며, 반제혁명무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부시는 북(조선)이 인민을 굶기면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혁명의 간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북(조선)은 왜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은 주한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Schwartz)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에 토머스 슈워츠가 발표했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 병력 80만명을 지휘하고 있으며 4백50만명 이상의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군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전함 2백50척, 항공모함 4척, 헬기 1천대, 공군기 1천5백대, 전차 3천대, 장갑차 5천대, 포 6천문이 동원될 수 있으며, 거기에 일본 ≪자위대≫ 무력이 가세할 수 있다. 북(조선)이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제국주의 군사력에 단독으로 맞서는 조건에서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자체의 군사력을 중시하고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명한 일이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조국통일3대헌장

#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1)

21세기 **김정일**시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첫날부터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실현의 곧바른 길을 밝히시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나라의 광복과 번영, 통일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 노고의 역사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민족단합의 대헌장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은 조국통일의 귀중한 밑천이며 재보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벌써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영도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올바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빛나는 과학적 예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민족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민족자주위업완성의 합법칙성과 민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가장 완벽하게 밝힌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을 통일할데 관한 사상,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었다.

오늘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영도, 인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그분의 탁월한 영도를 받들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는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위업완성의 기본열쇠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의 영도를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노동신문 1995년 2월 18일)

**김정일**영도자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이시며 경애하는주석과 한모습으로 겨레의 마음 속에 자립잡고 계시는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단합의 중심이시다.

민족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을 통일하여 경애하는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하자면주석의 사상과 인덕, 영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사상과 영도, 인품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그대로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에 기초하여야 조국통일의 성업도 이룩할 수 있으며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이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덕망의 위대성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